

# ( 공라 제 ) 교육 참석자 명단

현장명 : KT&G광주공장 자동창고증축(물류시스템공급)

일자 : 2024년 1월 5일

NO	업체명	성명	서명	NO	업체명	성명	서명
1	SFA	유진호		26	SFA	권민우	
2	"	안보욱		27		이민우	
3	"	김호민		28		이동우	
4	"	이재명		29		김영준	
5	"	김영준		30		김민우	
6		김현구		31		김원세	
7		차준민		32		김원빈	김원빈
8		이민우		33		김상진	
9		김민우		34		박태중 <sup>김민우</sup>	김민우
10		김영준		35		<del>김상진</del>	
11		김원세		36		김상진	김상진
12		이신욱		37		박태중	박태중
13		이병규		38			
14		김현우		39			
15		김상진		40			
16		이세민		41			
17		이재명		42			
18		조영철		43			
19		김기영		44			
20		이동우		45			
21		김주현		46			
22		이신욱		47			
23		이승주		48			
24		박정호		49			
25		김재현		50			



#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24. 1. 05.

## KT&G광주공장 증축공사현장



### CONTENTS

#### I. 긴급조치 개요 및 범위

1. 개요 및 범위 .....	3
2. 비상연락망 .....	3
3. 직무별 업무 분장 및 내용 .....	4

#### II. 응급조치 기본 개념

1. 응급 처치의 정의 및 목적 .....	6
2. 응급 처치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인 문제 .....	6
3. 현장 구조 활동의 원칙 .....	7

#### III.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 요령

1. 절단·베임·찢림 .....	10
2. 끼임·말림 .....	11
3. 골절 .....	12
4. 감전 .....	13

01 긴급조치 개요 및 범위

1. 개요 및 범위

■ 개요

- 산업현장은 항상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평소에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 준비와 면밀한 비상조치계획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조치계획에 따라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범위

- (1) 홍수, 범람,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
- (2) 붕괴,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한 근로자 및 시설물 피해

2. 비상연락망

■ 내부 비상연락망

- (1)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 등의 담당자 연락처
- (2) 시공사, 감리자 측 현장 상주자 및 본사 연락처
- (3)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연락처
- (4) 현장 상주자 출타 시 연락방법 등

■ 외부 비상연락망

- (1)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의 연락망 구성

Confidential

01 긴급조치 개요 및 범위

3. 직무별 업무분장 및 내용

■ 비상대책계획 작성(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1) 발생원인을 고려한 계획 수립
- (2) 사례 검토를 통한 예상 사고 파악
- (3) 비상계획 수립 및 작성

■ 비상대책반 구성(안전관리자)

- (1) 상황별 조치사항 이행 조직 구성
- (2) 유관기관 협조체계 검토
- (3) 업무분장에 의한 가상훈련 실시

■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 (1) 상황별 조치사항 이행
- (2) 업무분장에 의한 신속한 사고 수습

■ 원인분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1) 비상계획 이행 여부 검토
- (2) 문제점 파악 및 검토
- (3) 추가적 비상사태 도출 및 대책 수립

Confidential

01 긴급조치 개요 및 범위

3. 직무별 업무분장 및 내용

■ 재해방지조치(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1) 확정된 비상계획 공지
- (2) 파악된 문제점 개선 조치
- (3) 유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의 공중별 잠재 위험요소 및 조직의 내외적 위험요소, 과거의 사건사고 및 비상사태 발생 기록 등을 파악하여 계획 수립 시 적용

■ 안전관리자

- 현장별 특성에 따른 예상 유형을 고려하여 상응하는 비상사태 조치계획을 작성한 비상대책계획 작성, 비상대책반 구성, 안전사고, 자연재해 방지 조치와 원인분석

■ 관리감독자

- 상황별 재해 유형을 예상하고 사고 발생이라는 가정하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계획 수립

Confidential

02 응급처치 기본 개념

1. 응급처치의 정의 및 목적

■ 정의

- 응급처치(First Aid)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다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 한다.

■ 목적

- (1)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한다.
- (2) 통증을 감소시키며 손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장애를 경감시킨다.
- (3) 응급환자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다.

2. 응급 처치 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인 문제

- (1) 응급처치를 하기 전에 처치자는 반드시 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다.
- (2)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어떤 면에서는 폭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소송에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부상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응급처치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
- (3) 의식이 있는 경우 즉,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성인에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처치자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 할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Confidential

02 응급처치 기본 개념

3. 현장 구조 활동의 원칙

- (1) 현장조사(Check): 현장의 안전 여부와 함께 부상자 파악과 응급처치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한다.
  - 1) 즉시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기계·기구를 정지한다.
  - 2) 현장의 안전 상태와 위험요소를 확인한다.
  - 3) 사고 상황과 환자 및 부상자의 수를 파악한다.
  - 4) 응급처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한다.
  
- (2) 구조요청(Call): 부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호출하고 현장조사와 동시에 119에 신고 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 1)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
  - 2)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3)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
  - 4) 환자의 상태
  - 5)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 내용
  
- (3) 응급처치(First Aid):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지 평가한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1) 심장, 폐, 뇌, 척추 등 생명이 위급한 부위의 평가가 중요하며 자신이 응급 처치자임을 알려준다.
  - 2) 지속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응급의료진이 도착하면 환자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준다.

Confidential

02 응급처치 기본 개념

3. 현장 구조 활동의 원칙

- (4) 구조요청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응급 상황
  - 1)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경련, 마비 등), 구토 및 의식장애를 동반한 두부·척추 손상
  - 2)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장박동 이상자
  - 3) 약물중독 및 급성 시력 소실
  - 4) 급성 복통, 광범위한 화상, 개방성·다발성 외상
  - 5)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6)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및 전기손상, 익수, 분만 등

Confidential

02 응급처치 기본개념

3. 현장 구조 활동의 원칙

㉔ 현장 구조 활동 시 주의 사항

응급상황 시 고려할 점	응급상황 시 우선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는다.</li> <li>• 주변에 기름이나 가스 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li> <li>•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상황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한다.</li> <li>•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li> <li>• 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한다.</li> <li>•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li> </ul>

※ 응급처치는 어디까지나 병원 전단계인 임시적인 처치로서 구조자인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라도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주변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구조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지나가는 사람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위험요소의 제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즉시 제거한다.
- 화재 현장 같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환자를 옮기지 않는다.

Confidential

03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 요령

1. 절단·베임·찢림

절단 · 베임 · 찢림	작업장에서 또는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이 바로 절단·베임·찢림 사고이다. 절단·베임·찢림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

응급처치 방법

- (1) 지혈 조치를 한다.
  - 1) 가벼운 베임이나 찢림은 저절로 지혈되는 경우가 많다.
  - 2) 저절로 지혈되지 않는다면, 깨끗한 옷이나 붕대로 상처 부위를 20분에서 30분 가량 눌러 준다.
  - 3) 지혈을 시작한 지 20분도 지나지 않아 출혈이 멈추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 확인하려는 시도가 지혈을 방해하여 재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 (2) 상처를 깨끗하게 한다.
- (3) 항생제 연고를 바른다.
- (4) 상처를 덮는다.



※자연스레 빠지지 않는 상태면 절대 힘줘서 뽑지 않는다.

Confidential

03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 요령

2. 끼임·말림

끼임·말림

산업 기계는 일반적으로 건설 및 제조 등 각종 산업의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동기 및 발전기, 프레스 등 특수 산업용 기계, 금속 공작 가공 기계, 일반 산업용 기계와 설비를 말한다. 산업 기계 관련 사고는 위와 같은 산업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감김, 끼임, 절단 등의 사고를 말한다.

응급처치 방법

- (1)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고 발견 즉시 작동중인 기계 중지 및 전원차단
- (2)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119 신고 및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CPR 등)
- (3) 신체의 일부 등이 잘렸을 때 출혈이 심하므로 구급함을 이용해 깨끗한 거즈나 붕대를 두툼하게 댄 후 직접 압박하여 감싸주거나 높이 들어올려 지혈조치
- (4) 절단된 신체의 일부를 생리식염수로 씻은 후 깨끗한 거즈로 감싼 후 비닐이 찢지 않도록 밀봉
- (5) 냉장 상태를 유지하여 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

Confidential

03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 요령

3. 골절

골절

골절이란 뼈가 부러짐, 뼈의 손상을 입은 재해로 손상된 정도와 양상에 따라 단순 골절부터 골절 편을 여러 개 형성하는 분쇄 골절까지 다양하다. 골절재해는 떨어짐, 감전, 폭발사고, 교통사고 등 거의 모든 사고에 의해 골절상을 입을 수 있으며 탈구, 염좌 등의 손상도 같이 동반 될 수 있으나, 일반인을 구별하기 어려움으로 골절로 간주하여 동일한 처치를 시행한다. (골든타임 : 중증시 1시간 이내 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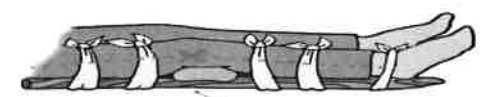
응급처치 방법

- (1)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 (2) 출혈 시 직접 압박으로 지혈한다.
- (3) 뼈 조각 돌출 시 소독 후 깨끗한 천으로 덮고 붕대로 감아서 압박 지혈한다.
- (4) 부러진 곳이 붕대를 대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 (5) 원래의 모양대로 뼈를 맞추려 하지 말고 부러진 상태 그대로를 유지한다.

골절의 종류



부목 사용법



Confidential

03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 요령

4. 감전

감전

감전이란 단순히 전류를 감지할 정도의 것에서 고통을 수반하는 쇼크, 그 위에 근육의 강직, 사망에 이르는 등 여러가지 증상을 띠는 현상을 말한다. 감전 피해는 감전 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도 중요하지만, 전기가 몸을 통과한 통전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짐으로 빠르게 전기 위험원으로부터 재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응급처치 방법

- (1) 재해자를 전기 위험원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전원을 차단 후 119에 신고한다.
- (2) 의료진을 기다리며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3) 우선 재해자를 눈으로 관찰하고 만지지 않는다.
- (4) 수초 후 재해자 몸의 잔류가 빠져 나간 후 재해자와 접촉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 (5) 무반응인지 살피고, 무반응이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 (6) 다리를 30cm 가량 높이 들어올려 눕혀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